

한-몽 항공회담 성과, 지방공항 운수권 확대·인천~울란바타르 증편

- 6월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등 대폭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가 양국 간 정상회담 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(6.23~6.24)된 한-몽 항공회담에서 지방공항의 몽골 노선 운수권과 인천~울란바타르 노선 공급을 확대*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
* '25년 양국 간 여객은 78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전('19년 41만명) 대비 90% 증가

○ 이로써 내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여름철 몽골 여행 수요는 물론, 몽골인의 방한 여행과 유학 수요 증가*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.

* '25년 몽골→대한민국 인바운드 승객 수는 '19년 대비 47% 증가

○ 한국 지방공항-몽골 노선의 경우, 기존에는 울란바타르에만 운항할 수 있었으나, 몽골 모든 공항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. 운항 횟수도 주24회에서 주35회로 대폭 늘어나 지방공항 국제노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인천~울란바타르 노선도 성수기 기준 주22회에서 주24회로 증대함*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이 증가할 전망이다.

* 좌석수 기준으로는 주6,000석에서 주6,500석으로 주500석 증대

<한-몽골 간 항공회담 주요 논의 결과>

	노선	기존		변경
한국 지방공항 (연중)	부산-울란바타르	주9회	주24회	(노선) 한국 모든 지방공항- 몽골 모든 공항 (횟수) 주35회(+11회)
	5개 공항(대구·청주· 무안·양양·제주) -울란바타르	주15회		
인천 (성수기 매년 6~9월 기준*)	인천-울란바타르	주6,000석 / 주22회		주6,500석(+500석) / 주24회(+2회)

* 비수기(매년 10월~익년 5월)의 경우 주12회 → 주14회(주3,350석→주3,850석)으로 증대

- 국토교통부 이소영 항공정책관은 “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정상회담 전 열린 항공회담에서 시의적절한 운수권 증대를 합의해 의미가 크다”고 평가하며,
- “이번 7월 여름 성수기부터 신속히 항공편이 증편되어 인적·물적 교류 확대 및 양국의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차상헌 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최연준 (044-201-4211)
			주무관	정도영 (044-201-4209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| TOMORROW